

육예(六藝)교육이 중국무술 체계 형성에 미친 영향*

노동호(남부대학교 교수)**

국문초록

이 연구는 육예교육과 중국무술의 상관성에 관해 고찰함으로써 중국무술의 가치와 특징을 근원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禮교육은 무술의 가치를 격기에서 도덕교육의 수단으로 승화시켰고, 살상의 기술에서 방어위주의 기법체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樂교육은 武舞에 근거하여 중국무술의 심미적, 예술적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무술 고유의 ‘투로’라는 연기위주의 운동형식으로 발전한다. 射교육에서 검양과 禮를 강조한 겨룸의 방식은 중국무술의 전통으로 이어진다. 동시에 승부를 경시하는 풍조는 무술의 경기화를 더디게 하였다. 御교육은 군영을 중심으로 다양한 마상무예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書교육은 무술의 格物, 象形, 象意의 원리와 상통하며 기법의 창작과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 매우 다양한 유파를 형성하고 이론을 기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數교육은 수리와 역리 이론에 기초하여 무술의 기법과 이론체계를 정립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주제어: 육예교육, 중국무술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남부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함.

** hao@nambu.ac.kr

I. 서 론

중국 고대의 관학은 주로 육예였다. 西周시대에는 국학과 향학을 막론하고 소학과 대학에서 국자들에게 모두 육예의 교육과정을 가르쳤다. 육예교육은 주나라 교육체계의 표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육예의 내용을 보면 육예는 통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실용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류밍위에, 최두진, 2017). 고문헌에 기록된 육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周禮 · 地官 · 大司徒』 “대사도는 지방에서 三物로 백성을 교화하고 그 중 어진 이를 빈객으로 예우하여 나라에 천거하였다... 세 번째가 육예인데 예·악·사·어·서·수이다.”¹⁾

『周禮 · 地官 · 保氏』 “보씨는 왕의 잘못을 간하고 공경대부의 자제들을 도로서 양성하는 일을 책임졌다. 그들에게 육예를 가르쳤는데 첫째가 五禮, 둘째가 六樂, 셋째가 五射, 넷째가 五馭, 다섯째가 六書, 여섯째가 九數이다.”²⁾

이상의 내용으로 육예는 당시 지배계층의 자제들을 대상으로 한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禮는 인격도야를 위한 교육의 사상적 기반이었고, 樂은 음악과 무용으로 정서도야를, 射 · 御는 무예훈련으로 신체 단련을, 書는 문과적 능력을, 數는 이과적 능력을 배양하는 비교적 전면적인 교육과정이었다. 현대 학계에서도 육예교육을 문무겸전의 교육 또는 전인교육으로 높이 평가하며 교육적 의의를 부여하기도 한다.

육예교육은 주나라 시기의 관학이었지만 유교의 원초적 교육과정으로 인식되며, 그 교육적 영향력은 후대로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특히 유교를 통치이

1) 以鄉三物教萬民 而賓興之 ...三曰六藝 禮樂射御書數

2) 保氏 掌諫王惡 而養國子以道 乃教之六藝 一曰五禮 二曰六樂 三曰五射 四曰五馭 五曰六書 六曰九數

념으로 하는 국가나 유학을 추종하는 학인들에게 육예는 당연히 이상적인 교육수단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중국은 최근의 학교교육에서도 본받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후대에 미친 영향력은 몇 가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小學 · 立教』편에서 『주례』에 명시된 육예의 내용을 그대로 수록한 것으로 보아 주자를 비롯한 宋대의 성리학자들에 이르러 고대의 육예교육이 다시 강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元대의 성리학자들에게도 그대로 전승되어 許衡(1209~1281)은 당시 원초의 교육제도를 주관하면서 국자학을 창시하고 자신의 교육사상과 방법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예를 핵심 내용으로 몽고인 제자를 가르치기도 하였다(김덕환, 2011). 육예가 각 시대에 미친 영향은 저명한 유학자의 문학작품이나 저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원대의 산곡 작가 馬致遠의 喜春來 六藝 6수나 명말청초의 개혁사상가 顔元의 저술을 예로 들 수 있다. 중국 17세기의 영향력 있는 개혁파였던 안원은 육예를 통한 교육이 진정한 실학이라고 주장한다.

顔元은 격물치지의 격물을 손으로 치거나 만지는 것, 혹은 손으로 실제 그 일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공자 학문의 육예 교육이 바로 그것이라고 보았다. 안원은 매일 제자들에게 六藝를 필두로 하여 병농과 고급에 대해 논하고, 심지어 ‘舉石, 超距, 擊拳’ 등의 신체단련까지를 포함한 덕 지 체의 전인적 교육을 행하였던 것이다. 그가 발견한 길은 공자의 원시유학에서 제시하는 三事, 三物, 특히 六藝의 학문을 習行하는 방법이었다(장원철, 2010). 그는 육예교육이 진정한 학문의 길이고 국가와 사회에 유익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육예교육이 중국의 교육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특히 육예 중 무예훈련과 연관된 樂 · 射 · 御의 비중이 크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육예교육이 중국무술 체계의 형성과 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고대 육예교육에서 중국무술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탐구는 중국무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근현대화를 거치며 중국무술은 개량과 혁신을 통한 발전을 꾀하고 있지만, 아직도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다. ‘경기 우수와 전통우수의 갈등, 투로(套路)

무술에 대한 비판, 실전 검증의 문제, 연이은 올림픽 진입 실패, 수련인구의 감소와 인기하락' 이 최근까지 대두되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되는 원인은 중국무술 정체성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육예교육이 중국무술의 체계 형성에 미친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중국무술의 본질적 가치와 특징을 근원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중국무술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함께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중국무술 전통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동시에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유교문명 혹은 육예교육의 영향을 받은 국가와 사회에서 형성된 일부 동양무예의 연구에도 참고가 되길 바란다.

육예를 주제로 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주로 육예교육의 내용 정리(이경자, 2010)나 교육학적 의의와 가치 고찰(류밍위에, 최두진, 2017), 육예의 체육학적 의미(강유원, 김이수, 2006), 활쏘기 射의 해석과 분석(김성인, 2017)' 등 육예 자체에 집중한 연구가 많았다. 중국 학계에서도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주로 사상적, 체육학적, 교육학적, 예술 심미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아직까지 육예교육이 중국무술이나 동양무예 형성에 미친 영향이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위주로 하여, 『周禮』, 『禮記』, 『論語』 등의 원전에서 六藝와 연관된 내용을 분류하고, 다시 중국무술 拳譜 등에서 육예와 상관된 내용을 발췌하여 분석하였다. 그 외에 국내외서 발표된 연관 주제의 저서와 논문 등을 참고하여 고찰하였다.

II. 六藝교육과 중국무술의 상관성

1. 禮교육이 중국무술 체계 형성에 미친 영향

1) 예와 중국무술의 도덕 수양

육예에서 禮는 하나의 독립된 과목이자 나머지 ‘樂 射 御 書 數’ 다섯 가지 과목과 융합된 교육이념이자 사상적 기반이었다. 문헌에 기록된 당시 예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周禮 · 地官司徒』 “오례로 백성의 허위의식을 막고 중용의 도로 교화한다.”³⁾

『禮記 · 曲禮』 “성인이 예를 만들고 사람들을 가르쳐 사람으로 하여금 예를 갖추게 하여 자신이 짐승과 다름을 알게 함이다.”⁴⁾

『左傳 · 隱公十一年』 “예는 나라를 다스리고, 사직을 안정시키고, 백성을 질서있게 하고, 후손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⁵⁾

『論語 · 季氏』 “예를 배우지 않으면 세상에 설 자리가 없다.”⁶⁾

『論語 · 顏淵』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마라.”⁷⁾

이상의 내용에서 禮가 개인의 도덕적 행동강령이면서 사회질서와 국가통치를 위해 꼭 필요한 이념이자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유교 교육의 근본이념이자 육예교육의 핵심 사상인 예는 당연히 중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교육목표가 된다. 중국문화의 하나인 중국무술도 자연스럽게 예 사상의 영향

3) 以五禮 防民之僞而教之中

4) 聖人作爲禮 以教人 使人 以有禮 知自別於禽獸

5) 禮者 經國家 定社稷 序人民 利後嗣者也

6) 不學禮 無以立

7)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을 받아 무술교육의 가치체계를 형성하였음을 여러 방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이러한 특징은 엄격한 전수방식에서 잘 나타난다. 중국에서 무술은 보통 師徒制 방식으로 전수되는데, 전수받기 위해선 높은 도덕적 자질이 요구되었다.

『少林拳術秘訣』에서는 “기예를 전수할 때 반드시 먼저 사람의 성정, 지기, 품격을 살펴야 한다. 3개월 관찰 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한다. 스승은 제자를 엄격하게 골라야 한다.” 고 하였고, 黃百家の 『내가권법』에서는 “힘약한 자, 싸우기 좋아하는 자, 주정뱅이, 경박한 자, 약골에 자질이 둔한 자”와 같이 다섯 종류의 사람에게는 전수하지 말라고 했다. 이 외에도 『昆吾劍·箴言』에는 “열 가지 종류의 사람에게는 전수하지 말라. 인품이 단정치 못한 자, 불충불효자, 진중하지 못한 자, 시정잡배...”의 기록이 있고, 『菴家拳 · 初學條目』에는 “무술공부보다 덕행이 우선이다. 공경겸손하며 남과 다투지 않아 바른 군자가 되어야 한다. 무술공부는 수양을 근본으로 한다. 거동을 평화롭게 하고 선한 마음으로 남을 대한다.” 라고 무술수련의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拳譜로 예를 든 무술뿐 아니라 대다수의 중국무술 유파에서는 기예수련에 앞서 德과 禮의 수양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긴다. 武德의 함양을 무술전수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여겼으며, 무덕은 이미 중국전통무술의 한 부분이자 중국무술의 영혼이다(劉樹軍, 2001). 무술과 예교육의 융합은 무술을 격투기에서 도덕적 교육의 수단으로 승화시킨다.

일본무도도 이러한 양상을 보이며 발전하였다. 중국적 사유인 예 사상을 일본 무가사회에서 받아들여 예법 속에 예 사상을 귀속 시킨 후 봉건적 사회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예법을 사용하게 된다. 무가사회에서 출발한 일본 무도의 예법과 이념은 메이지 유신 이후 천황제의 결속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2차 세계 대전을 앞두고는 군국주의의 이념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유성연, 2015).

무와 예의 결합을 통한 발전양상은 우리나라나 일본무도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유교문명의 영향을 받은 동양무예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무술에서 예교육의 강조는 기법과 운동형식의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 폭력과 살상의 기능이 정제되면서 방어위주의 기법과 수양위주의 공법이 만들어지고, 투로나 形과 같은 형태의 시연무술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武德은 도덕적 관념을 거쳐 무술에 융합되었고 아울러 무술의 기법을 규범화시켰다”(康戈武, 1991).

사회문명의 진보와 함께 사람들은 피비린내 나는 살육에서 점점 깨어나 ‘武’와 ‘德’을 결합하고 무술과 군사무술의 부단한 분화과정 속에서 가장 간결하며 효과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필살기에서 상대를 제압하면서 지나치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폭력제압술에 비중을 두고 발전하게 된다(劉樹軍, 2001).

이러한 발전양상 속에서 무술의 교육적 기능은 향상되었으나, 무술의 경기화는 정체(停滯)되었고 실전성은 쇠퇴하는 문제를 안게 된다.

2) 禮교육의 만물숭배와 중국무술의 物我一體觀

五禮 중 하나인 吉禮를 통해 고대 중국에서는 주변의 모든 환경을 중요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즉 만물을 단순히 사물로서 여긴 것이 아니라, 만물 속에 혼이 담겨 있다고 보고 만물과 개인, 만물과 집단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다(류밍위에 등, 2017). 오래에 나타난 예 교육은 도덕적 교육일 뿐만 아니라 천지신명을 향한 제례 등의 의식으로서 고대사회에서 주변 만물과의 조화로운 관계 형성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준다.

중국무술은 동물을 모방하고 자연을 모방하여 만물과의 교감을 통한 물아일체를 하나의 경지로 추구하는 무술이다. 짐승의 동작과 특징을 모방하여 상형권이라는 중국 특유의 무술체계를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연계의 현상들을 관찰하여 무술이론과 기법에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오래에서 만물을 경건한 대상으로 보고 숭배한 의식과도 상통하는 것으로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무술에서 자연을 방생한 예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산수를 모방한 동

작명칭은 “泰山壓頂，順水推舟”，바람과 구름을 모방한 동작명칭은 “來風復雨，浮雲起落”，해와 달을 모방한 동작명칭은 “日繞山尖，半月浸江” 눈과 파도를 모방한 동작명칭은 “雪花盖頂，浪里搖船”，꽃과 나무를 모방한 동작명칭은 “梨花舞袖，古樹盤根”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기법을 “動如濤，靜如岳，站如松 등” 처럼 자연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설명한다(郭志禹, 2010).

중국무술의 격물과 만물 상형에 관해서는 뒷장書교육에 관한 논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2. 樂교육이 중국무술 체계 형성에 미친 영향

육예의 樂교육은 음악과 무용, 詩歌를 말한다. 서로 분류된 것이 아닌 곡과 가사 춤이 어우러진 예술교육으로 보여 진다.

『禮記 · 樂記』 “음악을 하면 마음을 맑게 하고 귀와 눈을 총명하게 하며, 혈기를 조화롭게 하며, 풍속을 바로 잡아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⁸⁾

『禮記 · 文王世子』 “악은 내면을 수양하는 것이고 예는 외면을 수양하는 것으로 예와 악이 마음속에서 교차하여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⁹⁾

위의 문장을 보면 고대 유교사회는 음악을 교화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정서함양과 사회의 풍속을 바르게 하는데 주로 사용한 것이다. 공자가 『論語 · 泰伯』에서 “예로 서고 음악으로 완성한다.”¹⁰⁾고 한 것을 보면 고대 사회에서 음악교육을 얼마나 중요시 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육예의 악교육은 정서함양과 사회교화의 목적 외에 무예훈련의 성격이 강한 면모도 있었다. 악교육에서 들어나는 무예훈련의 일면은 다 음과 같다.

西周시대의 樂舞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20세 이전의 학

8) 樂行而倫清 耳目聰明 血氣和平 移風易俗 天下皆寧

9) 樂所以修內也 禮所以修外也 禮樂交錯於中 發形於外

10) 立於禮 成於樂

생은 小舞를 배웠는데 먼저 文舞를 배우고 뒤에 武舞를 배웠다. 20세 이후에는 大舞를 배웠다. 문무는 정적이며 차분한 서정적 성격의 무용이었고, 武舞와 大舞는 창과 방패, 혹은 도끼와 방패를 들고 추는 춤으로 군사적 성격이 강한 일종의 무예훈련이었다.

『禮記 · 明堂位』에 “빨간 방패와 옥도끼를 들고, 면류관을 쓰고 대무를 춘다.”¹¹⁾고 한 것을 보면 大舞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禮記 · 文王世子』 鄭玄注 “봄과 여름에는 창과 방패를 배운다... 창과 방패의 춤들은 象舞라고 한다. 활동이 필요할 때 이를 배운다.”¹²⁾

『周禮 · 春官 · 大司樂』 鄭玄注 “대무는 무왕의 樂이다. 무왕이 紂를 정벌하여 해를 없애고 그 덕이 무공을 이루었음을 말함이다.” 이는 “大武” 舞 역시 투지를 살리고 용맹함을 위시하는 춤으로 무술훈련의 성질이 있었음을 설명한다(林伯源, 1994).

『禮記 · 內則』 “15세가 되면 상무를 추고 활쏘기와 말타기를 배운다.”¹³⁾ 이 내용도 象舞 즉 무술춤이 활쏘기, 말타기의 교육과 함께 병행되었던 무예훈련이었음을 설명한다.

이상의 내용으로 육예의 악 교육은 성정을 도야하는 문적인 면과 군사적 훈련의 무적인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예훈련 성격의 무무는 음악의 반주와 엄격한 복장, 절제되고 규범화된 동작으로 구성된 춤으로 무예훈련 이상의 가치를 추구한 것으로 보여 진다.

堯舜시대의 고사에도 무무가 군사적 기능과 함께 비폭력의 양면성을 갖고 있음이 나타난다. 『韓非子 · 五蠹』에 의하면 “舜임금과 禹는 남방의 苗 씨부족을 철저히 신복시키기 위해 무술 공방의 동작들을 도끼와 방패춤(干戚舞)으로 만들어 훈련시키고, 이를 이용해 막강한 무력을 위시함으로 전쟁을 하지 않고도 상대를 굴복시키는 목적을 이루었다”¹⁴⁾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11) 朱干玉戚 冕而舞大舞

12) 春夏學干戈... 干戈萬舞 象武也 用動作之時學之

13) 成童舞象, 學射御

14) 當舜之時 有苗不服 禹將伐之 舜曰 不可 上德不厚而行武 非道也. 乃修教三年

전투에서 직접적인 살상을 통한 정복이 아닌 군사적 능력을 무술 춤으로 위시함으로써 상대를 굴복시킨 내용으로 무술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중국무술이 실전위주의 겨루기보다 투로와 같은 시연위주의 무술로 변화 발전하였기 때문에 연관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夏나라 때는 서로 베고 찌르며 아홉 번 회합하는 九伐舞가 등장하고, 주나라 때는 일찍이 舞象과 大武舞가 있었으니, 이러한 서로 공방을 겨루는 동작들이 어찌 무술의 대타와 대련에 영향을 주지 않았겠는가?(喬克勤, 1990).

武舞는 先秦시기에는 군사훈련의 수단의 하나였다. 하지만 한나라 때는 완전히 무공을 선양하는 연기향목이었다. 음악의 리듬에 맞추어 진행하던 무술 연기로 전장에서의 용맹한 자태를 재현하여 투지를 살리고 천하에 위세를 떨치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武舞는 이미 군사훈련과는 무관한 것으로 독립된 활동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후세의 무술 연기 활동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林伯源, 1994).

중국 고대의 사서나 문학작품에서 무술 춤 무무와 관련된 기록은 자주 등장한다. 당나라 때의 시인 杜甫의 작품 「觀公孫大孃弟子舞劍器行」에도 검무 시연의 정황이 생동감 있게 잘 묘사되어 있다. 송나라 때는 와사(瓦肆)와 같은 전문 공연장에서 무술의 투로연기를 공연했다는 기록이 있다.¹⁵⁾ 이러한 사실은 육예의 무무가 시대를 거치며 연기무술로서 더욱 완전한 형식을 갖춘 투로운동으로 발전되었음을 설명한다.

명대 이후에는 동작의 그림과 해설, 즉 圖譜를 갖춘 무예서가 등장한다. 이러한 책들을 통해 당시 무술 동작의 구성과 체계를 더욱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 紀效新書(1560), 耕餘剩技(1621), 武備志(1621), 武備要略(明 崇禎)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명나라 때의 茅元儀 『武備志』에는 약속대련의 실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舞對分九則”의 내용이 실려 있다. 기록에 따르면 힘, 속도, 정확성, 대응력

執干戚舞 有苗乃服.

15) 『夢梁錄』 “先以女廳數對打套子, 令人觀賭”. (林伯源, 中國武術史, 1990)

에 따라 9개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했는데, 마치 현대 경기우슈의 투로연기를 평가하는 방식과도 유사한 점이 있다. 이는 중국무술의 발전과정에서 겨루기 뿐만이 아니라 시연에 대한 평가방식이 오래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현재 우슈 투로경기에서 도입한 음악 반주와 화려한 복장의 배합도 고대의 무무의 전통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투로무술은 고대 육예의 禮樂의 武舞교육에 뿌리를 두고 형성 발전되었으며 중국무술 고유의 운동형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투로무술은 근대 이후 이소룡, 왕항제 등의 일부 혁신파 무술가들로부터 무술의 본기능인 실전의 효과가 적어 버려야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는 지금도 무술계의 치열한 논쟁거리다. 무술의 본질적 기능과 가치를 실전에만 한정하여 보는 것이 옳은지는 의문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서양의 격기가 실전이라는 원초적 기능에 한정되어 다양한 투기 종목으로 발전되었다면, 중국 무술은 禮 · 樂교육의 영향으로, 심미적 · 예술적 기능이 특화된 형태인 연기무술 ‘투로’를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발전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射교육이 중국무술 체계 형성에 미친 영향

射는 활쏘기로 고대에 가장 중시된 무예이자 군사훈련이었다. 주나라 시기의 육예교육의 사는 군사훈련, 도덕 예의교육, 제례의식의 기능이 복합된 형태였다.

『禮記 · 內則 · 燕義』에 의하면 당시 아이들은 15세가 되면 활쏘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일정 기간 습사 후에는 엄격하게 시험을 보았던 것을 알 수 있다.¹⁶⁾

당시 활쏘기의 기술적 기준에 대한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다. 『周禮 · 地官司徒 · 保氏』에 활쏘기 ‘五射’의 기록이 있고, 唐의 賈公彥이 ‘오

16) 成童舞象, 學射御, ...秋合諸射, 以考其藝而進退之

사’에 대해 疏를 달아 해석하였다. 오사는 白矢, 參連, 剡注, 襄尺, 井儀를 말한다. 오사는 武射의 측면이 강하며 동시에 禮謝적 요소도 가지고 있다. 맞추기를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살이 과녁을 꿰뚫어야 하는 관통력, 연속하여 발사하는 능력, 화살을 오녁에 신속하면서도 늘 같은 자리에 쏘는 능력을 갖추면서 과녁의 네 모서리를 정확하게 맞추는 정확성까지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김성인, 2017). 주나라 육예교육의 활쏘기 교육은 기술적으로 살상력을 갖춘 군사적 기능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육예가 주나라 관학 교육이었고 지배계층의 자제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射교육의 군사적 성격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고대로부터 활쏘기는 무관선발의 주요한 수단이었는데, 무과시험 시행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시취과목이 된다. 당나라 무즉천 시기에 처음 도입된 무과제도는 청나라 광서 27년(1901년) 폐지되기까지 약 1200년간 시행되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시취기준이 좀 달랐지만 무과시험에서 활쏘기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었다. 당나라 『新唐書 · 選舉志上』에는 무과 시취과목으로 ‘長垛, 馬射, 步射, 平射, 筒射, 馬槍, 翹關, 負重, 身材之選’의 아홉 가지 과목이 나와 있는데, 이 중 ‘장타 · 마사 · 보사 · 평사 · 통사’ 다섯 과목이 활쏘기이다. 송대에는 ‘弓步射, 馬步射’ 명대에는 ‘馬上箭, 步下箭’ 청대에는 ‘馬箭射毬球, 步箭射布侯’이라는 활쏘기 시취과목이 있었다.¹⁷⁾ 이러한 사실은 활쏘기가 고대 이래로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무예의 축이었음을 말한다.

또한 육예의 활쏘기는 군사적 기능 외에도 교육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공자이후 사학교육이 널리 보급되면서 활쏘기의 수양적 기능과 禮謝적 의미가 더욱 강조된 것이다. 아래 문헌의 내용에서 이러한 특징이 확인된다.

『禮記 · 射義』 “활쏘기는 仁의 길이다. 활쏘기는 자신을 바르게 할 것을 요구한다. 몸을 바르게 한 후에 발사 하며, 쏘아서 맞추지 못하여도 자신을 이긴 자를 원망하지 않고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아야 한다.”¹⁸⁾

17) 林伯源(1990). 中國武術史, 176, 219, 363p.

『中庸』 14장 “공자가 이르기를 활쏘기는 군자와 비슷하다. 과녁에 맞추지 못하면 돌이켜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는다.” 19)

여기서 활쏘기를 자기 수양의 방편으로 삼도록 말하고 있다. 활쏘기 시합에서도 지나친 승부욕을 경계하고 자기 성찰에 힘쓸 것을 권하고 있다. 이는 활쏘기를 단순한 기예가 아닌 인격 도야의 수단으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禮記 · 射義』 “활쏘기로 덕을 가늠한다.” 20)

『論語 · 八佾』 “군자는 겨를 일이 없다. 꼭 겨루어야한다면 활로서 겨룬다. 인사하고 양보하며 사대에 오르고, 내려와서는 술을 마신다. 이런 겨름은 군자답다고 할 수 있다.” 21)

이상은 활쏘기 시합의 성격을 보여준다. 경쟁을 통한 승부보다는 겸양과 예의를 통한 수양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모는 禮射의 구체적 활동인 大射禮나 鄉射禮에서 더욱 잘 나타나 있다.

육예교육의 하나인 활쏘기교육에서 겸양과 예의 강조는 중국무술의 전통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이에 관해선 앞서 禮교육 부분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다. 활쏘기는 중국 고대무예 중에서도 관학인 육예의 과목으로 도입된 만큼 무예적, 교육적 위상이 매우 높았을 것이다. 정신적 측면에서 중국무술은射교육의 가치와 방식을 추종하고 상호 보완하며 발전했을 것으로 본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활쏘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용어나 명칭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태극권이나 형의권, 의권 등의 步法훈련에서 요구하는 非丁非八 弓箭步, 丁八步는 활쏘기의 보법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또한 무술의 身法이론에서 三弓體, 五弓體과 같은 이론은 인체 힘의 작용원리를 활과 활쏘기의 이치로 설명한 것이다. 심지어 활쏘기 이론을 원리로만 들어진 弓力拳²²⁾이란 무술유파도 등장한다. 세부적인 동작의 명칭에도 양식

18) 射者 仁之道也 射求正諸己 己正而後發 發而不中 則不怨勝己者 反求諸己而已矣

19) 射有似乎君子 失諸正鵠 反求諸己身

20) 射者 所以觀盛德也

21) 君子無所爭 必也射乎 揖讓而升 下而飲 其爭也君子

태극권의 彎弓射虎, 팔극권의 開弓式, 拉弓式, 팔괘장의 馬上開弓, 開弓撒箭 등 활쏘기와 연관된 명칭이 매우 많다. 이러한 사실들은 중국무술이 활쏘기의 이론적 기술적 내용을 흡수하며 발전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4. 御敎育이 중국무술 체계 형성에 미친 영향

御는 말을 모는 기술을 지칭하는 것으로 육예의 교과목 중 하나이다. 주나라 시기에는 전쟁에서 전차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포함된 것이다. 어의 교육은 ‘鳴和鸞, 逐水曲, 過君表, 舞交衢, 逐禽左’의 다섯 가지 내용이 있어 五御라고 한다. 해석에 의하면 ‘방울소리 울리기, 물 건너기, 군영 출입하기, 갈림길 돌기, 사냥하기’ 등으로 상황에 따른 마차 모는 기술 등을 포함한 내용이다.

『論語 · 子罕』에서 공자는 “내가 무엇을 택할까? 수레 몰기를 할까? 활쏘기를 할까? 나는 수레 모는 일을 하겠다.”²³⁾고 하였다. 문답을 통한 공자의 말에서 그가 말 다루기에 능하고 御敎育에 상당한 자신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대사회에서 말을 다루는 기술은 교통수단으로도 중요했지만,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활이나 창과 같은 무기술과 결합되어 마상무예로 발전한다.

唐 이전에 騎射, 馬上槍 위주로 단조로웠던 무상무예는 당나라 이후에는 錘鏑, 鐵錘 등의 마상용 단병기가 등장하며 다양한 형태의 마상무예로 발전하게 된다. 기마무예는 고대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기에 중국의 역대 무과 시취에서도 馬射과 馬槍이 중요한 평가 항목이었다. 화력 무기의 발달로 무과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무상무예는 주요 군영무예의 하나로서 중국무술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현재 마상무예는 사라졌지만 중국무술의 기본보법인 馬步와 같은 기초훈련이나 長槍의 기법 등에서 그 흔적을 찾아

22) 산서성 趙蓮(1657-1748)이 만든 무술로 “身似弓弩 蓄力拉弓 發力射箭”이 기본 이론이다.

23) 吾何執 執御乎 執射乎 吾執御矣

볼 수 있다.

육예에서 御교육은 역대 군영을 중심으로 다양한 마상무예의 형태로 진화하며 발전하였다. 비록 시대의 변천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기법적 영향은 중국무술 속에 아직 미미하게나마 남아 있다.

5. 육예 書교육이 중국무술의 체계 형성에 미친 영향

주나라 육예의 書교육은 문자 구성원리와 글쓰기에 관한 것이다. 『小學集註 · 立教』에서는 “글로서 마음씨를 본다(書以見心書)”고 하여, 육예 서교육의 수양적 기능도 강조했다.

『周禮 · 地官 · 保氏』에 六書가 처음 등장하고 육서에 대한 해석은 西漢 유흠(劉歆)의 『七略』에 나온다. “옛날에는 8세가 되면 소학에 입학하였고 주관 보씨는 공경대부의 자제들을 양성하는 일을 책임지고 그들에게 六書を 가르쳤다. 즉 ‘象形 · 象事 · 會意 · 形聲 · 轉注 · 假借’가 그것으로 이는 글자를 만드는 근본이다.” (김덕환, 2011) 이것이 육서에 대한 최초의 해석이지만, 청대 이후에는 허신(許慎)의 『說文解字』에 나오는 ‘象形, 指事, 會意, 形聲, 轉注, 假借’로 통용되었다. 이는 한자 모양의 구조원리에 대한 학습으로 볼 수 있다.

한자는 表意체계의 문자로 자연을 모방하여 그리는 상형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한자는 중국인 특유의 사유방식을 보여준다. 대자연의 형태와 현상을 관찰하고 모방하여 학습하는 것은 중국인의 전통적 사유방식으로 중국문화의 발생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작용했을 것이다. 중국문자인 한자가 상형문자인 점을 보아도 상형이 중국문화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상형과 格物致知의 사유방식은 한자문화와 함께 무술의 형성과 발전에도 동일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국무술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보면 상형의 특징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나의 형체나 현상을 세심하게 본떠 무술을 만드는 과정은 매우 오랫동안

여러 유파에서 이어졌고 이러한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後漢書』에 의하면 명의 華陀가 ‘호랑이 · 곰 · 사슴 · 원숭이 · 새’, 다섯 가지의 동물형상을 모방하여 ‘五禽戲’라는 도인술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문헌에 등장한 최초의 사례이다.

무술의 대표적인 사례는 ‘少林五形拳’으로 용 · 호랑이 · 표범 · 뱀 · 학을 모방하여 만들었다. 팔괘장에서는 팔괘를 8가지 동물로 형상화하여 만들기도 하였다. 乾卦獅形拳, 坤卦麟形拳, 坎卦蛇形拳 등이 그 예이다.

이 외에도 원숭이를 모방한 猴拳, 虎鶴雙形拳, 일명 사마귀권법인 螳螂拳, 白鶴拳, 오리를 모방한 鴨形拳, 독수리권법 鷹爪拳, 形意12形拳, 意拳 4形 등으로 그 예는 부지기수이다.

이러한 동물 상형을 특징으로 하는 수많은 상형권 유파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중국무술 유파를 분류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중국무술에서 상형은 외적인 동작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심상 훈련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象意적 특징의 무술은 意拳, 形意拳, 心意拳과 같은 유파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례는 한자와 중국무술이 象形, 象事, 象意라는 동일한 사유방식에 근원을 두고 발전하였음을 증명한다. 또한 역사적으로 앞선 한자문화가 후대에 형성된 중국무술의 체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방식은 중국무술의 형성과 발전에 무한한 원천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중국무술의 발전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어서 書法에서도 중국무술과의 연관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채옹(蔡邕)은 『篆勢』에서 거북이 등, 용린(龍鱗), 벌레 뱀, 파도, 독수리, 큰기러기(鴻鵠) 등 대자연의 물상을 모방하여 전서를 쓴다고 하였다. 최애(崔瑗)는 『草書勢』에서 날짐승, 구슬 꿩, 사마귀, 산봉우리, 뱀, 파도를 모방하여 초서를 쓴다고 하였다. 자연만물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한 것이 서법예술이라 할 수 있다. 중국무술도 자연 생명의 움직임과 각종 동물의 자세와 움직임에서 그 형상을 취하고 있다. 이는 무술과 서예가 동일하게 자연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姚淦銘, 1990).

중국무술과 서법은 본래 완전하게 다른 기능이나 자연에서 원리와 이치를

배우고자 하는 자연 仿生의 동일한 점이 있다. 사물을 관찰하여 형상을 취하고 또한 물상의 깊은 의미를 흡수하여 귀결하고 분류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은 앞서 禮敎育과 무술의 ‘물아일체관’ 대목에서 사례로 논한 바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육예 敎育이 중국무술의 格物, 象形, 象意의 원리와 상통하며, 다양한 유파의 형성과 기법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6. 육예 數敎育이 중국무술의 체계 형성에 미친 영향

『周禮 · 地官司徒』에 의하면 서주시대 육예 數敎育의 내용은 九數이다. 구수는 땅의 면적 구분, 사물의 체적, 산수의 응용, 팔괘, 오행, 천문학 등 여러 방면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고대 중국사회에서 敎育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류명위에, 2017).

『小學集註 · 立敎』의 육예 增註에서 “數로서 사물의 변화를 끝까지 궁구 한다”고 한 것을 보면, 육예敎育에서 數敎育의 목적이 천지만물 변화의 이치를 깨우치게 하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인 특유의 수리적 개념인 태극오행팔괘의 易理 사상에 근거한 사유방식은 중국무술의 창작과 발전에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중국무술에서 8식, 16식, 24식, 36식, 42식, 56식, 64식 등 8의 배수로 한정하여 동작의 조합을 구성하는 패턴은 중국무술의 역리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예이다.

形意拳의 중요 기법인 五行拳은 劈, 崩, 鑽, 炮, 橫 다섯 가지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오행권은 水 · 火 · 木 · 金 · 土의 五行의 원리에 부합하고 신 · 심 · 간 · 폐 · 비의 오장의 기능과 연결되어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오행의 상생상극의 이론에 근거하여 오행권의 공격과 방어의 기술 변화와 운용을 설명한다. 이 외에도 태극권에선 進 · 退 · 顧 · 盼 · 定 五步의 보법이론을, 戳脚에선 五手 五脚의 손기술과 발차기를 오행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

孫綠堂은 저서 『팔괘권학』 서문에서 자신이 역리를 이용하여 무술을 만들었음을 밝힌다.

“역리의 응용은 광범위하고 정밀하다. 수신치기의 기술에 있어선 더욱 상세하다. 나는 어려서부터 무술을 연구하였는데, 주역의 함의를 듣고 무술에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의 팔괘장은 주역의 무극, 태극, 양의, 사상, 팔괘, 64괘의 원리를 이론적 근거로 하여 기법을 구성한다. 역리의 순서에 따라 동작을 만들고 투로를 창작했으며 역리로 무술의 체계를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육예의 數교육은 산수의 범주를 넘어 천지만물의 변화를 탐구하는 易學이기도 하였다. 중국의 고대 교육체계에서 수리와 역리에 대한 강조는, 중국무술이 수리와 역리 이론에 기초하여 무술의 기법과 이론체계를 정립하는데 깊은 영향을 미치었다. 특히 태극권, 형의권, 팔괘장은 역리를 이론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무술이다. 이러한 이론적 혼입은 무술 학습에서 철학적 탐구를 풍부하게 하였지만, 반면에 실제와 괴리된 이론적 허구를 형성하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Ⅲ. 결론

육예교육은 중국무술의 가치, 운동형식, 경기방식, 훈련법, 창작구성 등 체계 형성에 전면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결과 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경쟁을 통한 승부보다는 겸양과 조화를 추구하는 중국무술의 교육적 가치를 형성하였다. 육예의 과목별로 중국무술의 체계 형성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禮교육은 무술의 가치를 격기에서 도덕교육의 수단으로 승화시켰고, 살상의 기술에서 방어위주의 기법체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樂교육은 武舞에 근거하여 중국무술의 심미적, 예술적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무술 고유의 ‘투로’라는 연기위주의 운동형식으로 발전한다.

射교육에서 검양과 禮를 강조한 겨룸의 방식은 중국무술의 전통으로 이어졌다. 동시에 승부를 경시하는 풍조는 무술의 경기화를 더디게 하였다.

御교육은 군영을 중심으로 다양한 마상무예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書교육은 무술의 格物, 象形, 象意의 원리와 상통하며 기법의 창작과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 매우 다양한 유파를 형성하고 이론을 기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數교육은 수리와 역리 이론에 기초하여 무술의 기법과 이론체계를 정립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다만 실제와 괴리된 허구 이론의 폐해도 존재한다.

육예교육의 영향으로 중국무술은 다양한 가치와 풍부한 기법을 형성하며 발전하였지만,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무술의 실제에서 지나친 禮교육의 강조는 지나친 형식을 조장하고 경기스포츠로의 발전을 더디게 하였다. 투로 연기무술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실전성을 약화시켰으며, 易理로 정립된 무술이론은 오히려 무술의 원리에 대한 합리적 이해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전통에 대한 자성과 혁신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정된 주제로 오랜 문명화를 거치며 형성된 무술문화를 온전하게 규명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다만, 이 연구를 기초로 하여 중국무술을 비롯한 동양의 무술문화를 명쾌하게 밝히는 심도 있는 후속연구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류밍위에, 최두진(2017). 육예교육과정의 교육적 의의. **교육혁신연구**, 27(4), 173-198.
- 김덕환(2011). 馬致遠의 육예관 一考. **중국문학연구**, 43, 25-46.
- 장원철(2010). 명말청초 顔元의 학문과 사상에 대하여. **남명학연구**, 29, 329-364.
- 유성연(2015). 일본 무가 예법의 역사와 사상을 통해본 무도의 예법. **한국체육학회**

지, 54(5), 11-20.

김성인(2017). 六藝 중 射의 구성요소와 의미. **한국체육학회지**, 56(3), 11p.

이경자(2010). 중국 고대의 육예교육. **윤리교육연구**, 22, 157-176.

강유원, 김이수(2006). 소학에 나타난 몸예에 대한 의미와 체육교육. **한국체육학회지**, 45(4).

『禮記』

『周禮』

『論語』

劉樹軍(2001). 傳統武德及其價值重建. 博士學位論文, 上海體育學院, 31p.

康戈武(1991). 中國武術實用大全. 臺灣, 五洲出版社.

郭志禹(2010). 武術文哲子集. 現代教育出版社, 52p.

林伯源(1994). 中國武術史. 北京體育大學出版社, 46-50p.

喬克勤(1990). 中國武術的發展與教育的關係. 中國武術與傳統文化, 北京體育學院出版社, 108p.

李世宏(2010). 論先秦六藝教育中的體育活動. 南京體育學院學報, 24(1).

王化冰, 張立燕(2012). 論孔子體育思想的兩面性. 體育文化導刊, 2012(1).

徐才 主編(1991). 中國武術拳械錄. 人民體育出版社.

尊我齋主人(1984). 少林拳術秘訣. 中華書局.

黃梨洲文集. 王征南墓志銘. 北京中華書局, 1959.

孫綠堂(1916). 八卦拳學, 孫綠堂武學錄, 人民體育出版社, 1999, 120p.

ABSTRACT

The Effects of the Six Arts(六藝) Education on the Formation of Chinese Martial Arts Structure

Noh, Tong-Ho(Nambu Univ.)

This study i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values of Chinese martial arts fundamentally by reviewing the effects of the Six Arts(六藝) education on the formation of Chinese martial arts structure. The effects of each subject are as follows.

Manners(禮) has sublimated the values of martial arts from hand-to-hand-fight to means of moral education, and affected the formation of the defense-oriented technique system from the killing techniques.

Music(樂) has affected the aesthetic and artistic development of Chinese martial arts based on Martial dance(武舞). A traditional Chinese martial arts type of acting based exercise called ‘Taolu(套路)’ has been created.

The game methods in Archery(射) that highlighted modesty and rites have been inherited to the tradition of Chinese martial arts. The tendency of belittling victory or defeat has retarded martial arts to become a game.

Horse riding(御) has affected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various horse-riding martial arts based on military camps.

Calligraphy(書) has affected the creation and composition of techniques in communication with martial arts’ the study of things & nature(格物) and imitation(象形) principles. It helps to form various schools and to record theories.

Mathematics(數) has affected the establishment of martial arts’ techniques and theory structure based on the mathematical principle and Zhouyi(易理).

key words: Six Arts education, Chinese martial arts

논문투고일 : 2020.12.31.
심 사 일 : 2021.01.10.
심사완료일 : 2021.01.31.